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양윤희<sup>1</sup>, 선혜연<sup>2</sup>

###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S시 소재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23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9.0을 활용하여 각 변인의 상관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팬텀변수를 사용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변인의 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매개하는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상담 장면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의 종합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과 상담의 개입 지점 및 방향에 대한 제언 및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 이 논문은 양윤희(2024)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한국교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dbsgml2309@naver.com](mailto:dbsgml2309@naver.com) (주저자)  
2. 한국교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shy@knue.ac.kr](mailto:shy@knue.ac.kr)(교신저자)

## I.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이 속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는 아동이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회 적응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며, 초등학교 시기는 삶의 중심이 가정이었던 아동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성장해나가는 시간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또래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므로(김비 외, 2019), 초등학교에게 학교적응은 주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요구와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으로(권혜진, 성미영, 2014), 학교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등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을 말한다(이정윤, 이경아, 2004; 차유림, 2001).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학교생활은 학생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만들어 내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이서희, 2019).

반면 학교적응 실패로 인한 부모, 친구, 교사의 부정적 평가는 학생에게 심리적 위축 및 불안감을 유발하며,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김영란, 2019; 차유림, 2001). 학교 부적응은 기본적으로 수업 태도 불량, 교우관계 문제, 학교 불만족 등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무단결석, 학교폭력, 비행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박상민, 2008; 정영숙, 2013). 이러한 부적응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고(박은선, 2000), 이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송영경 외, 2011) 조기 개입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Erikson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로 명명하며, 창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였다(신성철, 2014). 그런데 이 시기의 학생들은 사춘기로 인한 신체·심리적 변화가 동반되며, 다양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내·외적인 갈등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다(이주연, 2021).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은 저학년과는 발달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적응과정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정서적으로 미성숙하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김춘경 외, 2016) 정서적 안정과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아동기의 특성에 주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아동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욕구가 충족될 때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지란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도움과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Cohen & Hoberman, 1983),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핵심 요인이다(최진아, 이숙, 1996). 선행연구들은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한별, 2015; 유병선 외, 2008).

한편 최근 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병리 중심 접근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Sarracino et al., 2011),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된 긍정적 특성을 활용해 부적응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허영진, 2017,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하고 있다(김성호, 2016; 이주연, 2021).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최아라, 이숙, 2016),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을 자본의 형태로 개념화하여 만든 복합적인 심리역량이다(여인주, 2014). 이는 학생이 목표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 힘으로(박미진, 2019),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보다 원만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상태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연습과 훈련 등 후천적 노력을 통해 개발 및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본개념을 초월하는 장점이 있다(Luthans & Youssef, 2004; 김성호, 2016, 재인용). 이에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키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정적 효과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강진, 2020; 권수정, 2022). 이청화(2022)는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직면하는 과업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돕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진로성숙도를 들 수 있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진로성숙도는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과 선택을 통합·조정해 나가는 능력과 태도의 정도를 의미하며(남궁정, 2004), 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정익중 외,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기에 대한 인식과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황매향 외, 2025), 이 시기의 진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미래 진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보이는 경향이 보고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진로성숙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백서호, 김장희, 2024).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고(김병하, 2017; 김태영, 2016), 진로교육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연은모, 2018).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을 추론할 수 있다(금지현, 2012).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진로 탐색 행동을 촉진하고 진로 선택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이상희, 2005),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최은희, 2007; 최혜경, 2022).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나아가 긍정심리자본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 행동을 강화하고, 의미 있는 진로 탐색 및 계획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윤희, 2022),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과 같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도 진로성숙도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영, 2016; 이영남, 2019; 임지윤, 2018; Creed et al., 2002).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예측한다.

학교적응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가족, 학교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이지연 외, 2014),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요인적 접근을 바탕으로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최아라, 2017). 즉,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변인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계되는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고, 학교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 실질적 개입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매개하는 모형은 타당한가?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S시 소재 2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IRB) 연구 승인 후, 학교 관리자 및 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조사 지침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은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여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 있거나 동일 번호 반복, 무작위 응답 등으로 판단되는 불성실한 응답 49부를 제외한 42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7명(48.9%), 여자 216명(51.1%)이고, 학년은 5학년 214명(50.6%), 6학년 209명(49.4%)이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23)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07	48.9
	여자	216	51.1
학년	5학년	214	50.6
	6학년	209	49.4

## 2. 측정도구

### 가.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조수정(2014)이 국내외 관련 연구들과 개방형 문항을 기초로 개발한 학령 후기 아동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태도/규칙준수(9문항), 또래와의 관계(7문항), 교사와의 관계(8문항), 학교만족감(6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은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1,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학업태도/규칙준수 .885, 또래와의 관계 .908, 교사와의 관계 .903, 학교만족감 .900, 전체 .951로 나타났다.

###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o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erman(1983)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Lemper 외(1989)의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한미현(1996)이 변안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지지(8문항), 가족지지(8문항), 교사지지(8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9,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친구지지 .917, 가족지지 .924, 교사지지 .881로 나타났다.

### 다.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등(2006)의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과 관련된 국내외 척도들을 분석하여 개발한 박미진(2019)의 아동용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6문항), 희망(8문항), 탄력성(3문항), 낙관성(4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3,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효능감 .829, 희망 .826, 탄력성 .791, 낙관성 .838으로 나타났다.

#### 라.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임언 외, 2001)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정의중 외(2011)가 수정 및 개발한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계획성(7문항), 자기이해(6문항), 일에 대한 태도(5문항), 독립심(4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7,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계획성 .879, 자기이해 .871, 일에 대한 태도 .734, 독립심 .818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소속 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IRB)에 연구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7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직접 S시 소재 초등학교의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연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 뒤 협조를 구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를 묻는 총 97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안내, 응답 주의사항, 설문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인구통계학적 문항이 포함되었다. 응답 시간은 평균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자료는 총 472부를 수집하였으며 부적합한 49부를 제외한 423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과 AMOS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왜도 및 첨도를 계산하여 정규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NFI, CFI, TLI, RMSEA 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곱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각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적응은 평균 3.280점(SD=.451),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82점(SD=.577),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708점(SD=.704), 진로성숙도는 평균 3.872점(SD=.650)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West et al., 199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와 Parker(2005)의 기준에 따라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1은 매우 낮은 상관, .1~.2는 약한 상관, .2~.4는 보통, .4~.6은 비교적 강한 상관, .6~.8은 강한 상관, .8~1.0은 매우 강한 상관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적응은 사회적지지( $r=.670, p<.01$ )와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심리자본( $r=.585, p<.01$ )과 진로성숙도( $r=.587, p<.01$ )와는 비교적 강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 $r=.572, p<.01$ )과 비교적 강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 $r=.495, p<.01$ )는 보통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 $r=.607, p<.01$ )와 강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N=423)

	1	1-1	1-2	1-3	1-4	2	2-1	2-2	2-3	3	3-1	3-2	3-3	3-4	4	4-1	4-2	4-3	4-4
1	1																		
1-1	.841**	1																	
1-2	.795**	.516**	1																
1-3	.840**	.623**	.539**	1															
1-4	.860**	.631**	.610**	.644**	1														
2	.670**	.509**	.597**	.594**	.540**	1													
2-1	.546**	.399**	.644**	.354**	.429**	.804**	1												
2-2	.407**	.359**	.328**	.342**	.326**	.772**	.418**	1											
2-3	.636**	.448**	.438**	.719**	.526**	.794**	.474**	.416**	1										
3	.585**	.474**	.555**	.374**	.553**	.572**	.536**	.412**	.405**	1									
3-1	.495**	.430**	.447**	.311**	.465**	.409**	.361**	.301**	.305**	.872**	1								
3-2	.569**	.464**	.546**	.363**	.528**	.562**	.547**	.392**	.389**	.921**	.713**	1							
3-3	.438**	.307**	.451**	.279**	.432**	.498**	.478**	.366**	.335**	.838**	.632**	.717**	1						
3-4	.514**	.412**	.479**	.338**	.491**	.537**	.491**	.390**	.390**	.857**	.658**	.707**	.695**	1					
4	.587**	.540**	.492**	.433**	.489**	.495**	.405**	.354**	.415**	.607**	.542**	.593**	.437**	.507**	1				
4-1	.522**	.483**	.425**	.375**	.454**	.460**	.375**	.336**	.379**	.575**	.520**	.553**	.412**	.489**	.846**	1			
4-2	.535**	.457**	.519**	.368**	.439**	.481**	.425**	.343**	.371**	.620**	.537**	.582**	.498**	.536**	.824**	.593**	1		
4-3	.454**	.461**	.290**	.379**	.373**	.348**	.229**	.272**	.325**	.366**	.336**	.397**	.207**	.274**	.776**	.544**	.471**	1	
4-4	.287**	.262**	.252**	.220**	.222**	.201**	.178**	.105*	.193**	.248**	.227**	.250**	.164**	.199**	.692**	.398**	.432**	.545**	1
M	3.28	3.24	3.41	3.36	3.08	4.08	4.00	4.36	3.88	3.71	3.65	3.86	3.48	3.68	3.87	3.73	3.90	3.98	3.95
SD	.45	.49	.57	.50	.64	.58	.75	.73	.72	.70	.78	.71	.96	.89	.56	.81	.87	.75	.84
왜도	-.788	-.624	-1.035	-.789	-.657	-.403	-.598	-1.144	-.271	-.308	-.086	-.561	-.252	-.397	-.676	-.552	-.779	-.771	-.771
첨도	1.118	.842	.738	.712	.263	-.460	-.130	.515	-.521	-.362	-.648	.003	-.596	-.257	.706	-.001	.020	.200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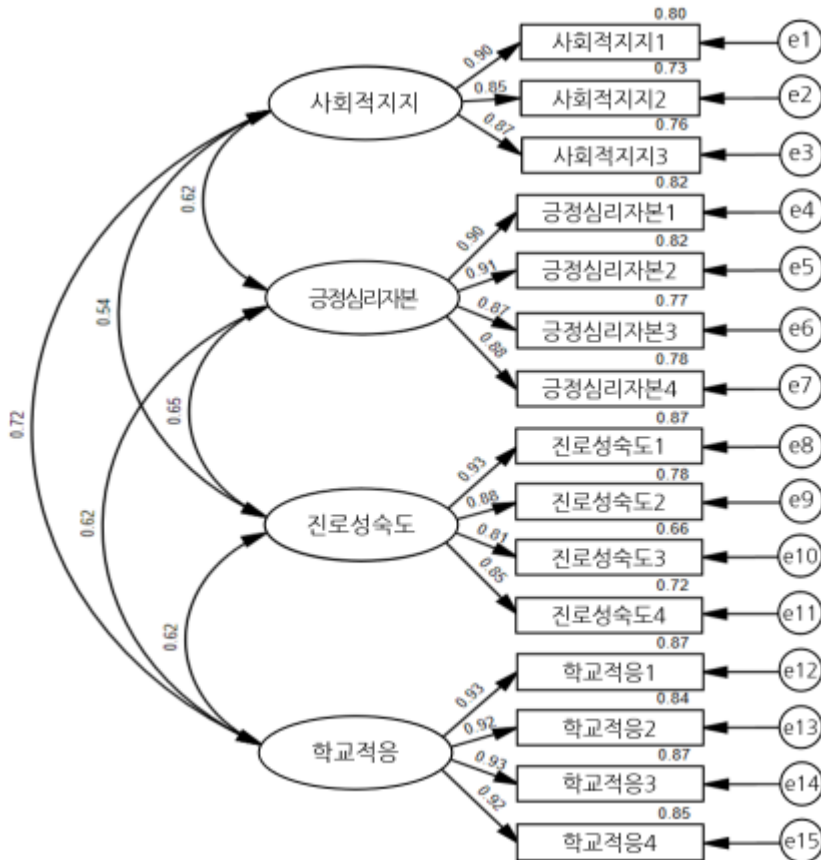
주 1. 1: 학교적응, 1-1: 학업태도/규칙준수, 1-2: 또래와의 관계, 1-3: 교사와의 관계, 1-4: 학교만족감, 2: 사회적 지지, 2-1: 친구지지, 2-2: 가족지지, 2-3: 교사지지, 3: 긍정심리자본, 3-1: 자기효능감, 3-2: 희망, 3-3: 탄력성, 3-4: 낙관성, 4: 진로성숙도, 4-1: 계획성, 4-2: 자기이해, 4-3: 일에 대한 태도, 4-4: 독립심  
 주 2. \*\* $p < .01$ , \* $p < .05$

##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 가.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는지 확인하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분석에서는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를 잠재변인으로 하고, 각 변인의 원척도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나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문항 묶음 기법을 활용하였다. 문항묶음은 요인계수의 크기가 유사하도록 문항을 분배하는 균형할당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홍세희 & 정송, 2014), 요인당 3~4개의 문항묶음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선행 연구(이지현 & 김수영, 2016)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는 3개,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은 4개의 묶음으로 설정하였다. 문항 묶음 후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든 지표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chi^2 / df < 3$ ,  $RMSEA \leq .08$ , NFI, CFI, TLI  $\geq .90$ 일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노경섭, 2019; Schermelleh-Engel et al., 2003). 이에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연구모형은 측정모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므로 별도의 구조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한 모형을 바탕으로 잠재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측정 모형은 [그림 1]에,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회귀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모수추정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i>df</i>	NFI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39.901	84	.963	.976	.970	.066 (.057~.076)
적합도	-	-	≥.90	≥.90	≥.9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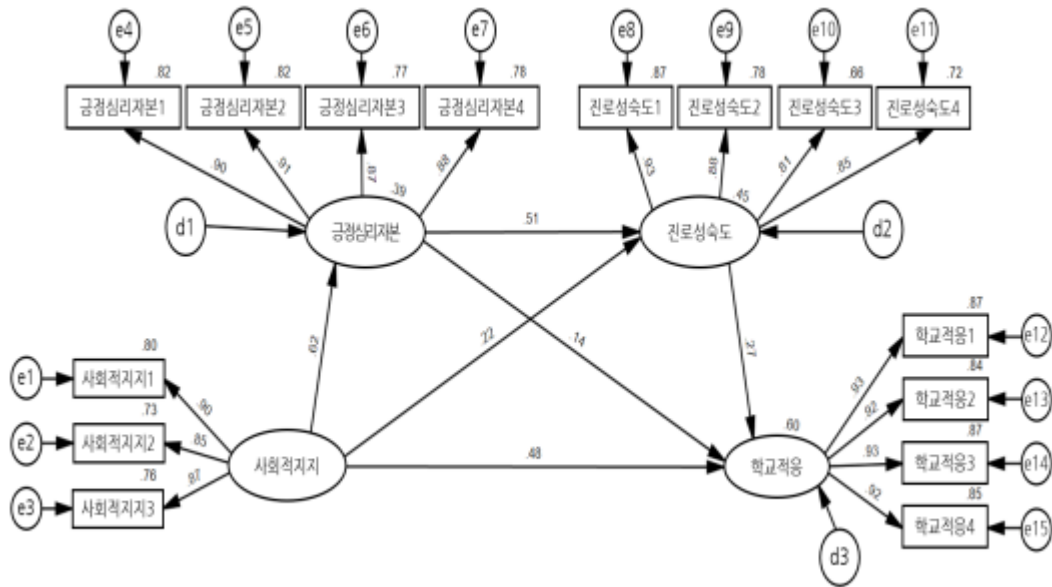
〈표 4〉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B	$\beta$	<i>S.E.</i>	<i>C.R.</i>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1	1.000	.896		
	사회적지지2	1.025	.854	.043	23.605***
	사회적지지3	1.068	.872	.044	24.49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1	1.000	.905		
	긍정심리자본2	1.072	.905	.037	29.079***
	긍정심리자본3	.984	.875	.037	26.827***
	긍정심리자본4	.954	.882	.035	27.347***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1	1.000	.931		
	진로성숙도2	.923	.884	.032	28.723***
	진로성숙도3	.907	.813	.038	23.701***
	진로성숙도4	.944	.848	.036	26.011***
학교적응	학교적응1	1.000	.931		
	학교적응2	.936	.916	.028	33.812***
	학교적응3	1.026	.934	.028	36.094***
	학교적응4	.997	.923	.029	34.721***

\*\*\* $p < .001$

#### 나. 연구모형 검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beta$	S.E.	C.R.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852	.622	.065	13.180***
	→ 진로성숙도	.251	.218	.063	3.958***
	→ 학교적응	.379	.482	.040	9.582***
긍정심리자본	→ 진로성숙도	.428	.511	.047	9.083***
	→ 학교적응	.081	.141	.030	2.651**
진로성숙도	→ 학교적응	.185	.271	.034	5.517***

\*\*\* $p < .001$ , \*\* $p < .01$

다.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를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검토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비모수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에서 2,000회 복원추출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팬텀변수로 추정할 경우 비표준화계수는 정확하게 산출되나, 표준화계수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배병렬, 2017), 본 연구에서는 비표준화 회귀계

수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모형의 전체 매개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사회적 지지 → 학교적응	.562***	.379***	.183***	.492~.641

\*\*\* $p < .001$

<표 7>은 개별 매개경로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 $B=.047$ , 95% 신뢰구간 .015~.106,  $p < .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 $B=.068$ , 95% 신뢰구간 .024~.129,  $p < .01$ ) 역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 $B=.069$ , 95% 신뢰구간 -.019~.138,  $p \geq .05$ )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를 통해 학교적응에 유의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긍정심리자본은 단독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지만, 진로성숙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팬텀변수로 검증한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p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 학교적응	.069	.041	-.019~.138	.143
사회적 지지 → 진로성숙도 → 학교적응	.047	.022	.015~.106	***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 진로성숙도 → 학교적응	.068	.026	.024~.129	**

\*\*\* $p < .001$ , \*\* $p < .01$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위기 및 변화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적응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선행연구(Barrera, 1986; 광미아, 2022)와 맥을 같이하며, 사회적 지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기존 연구(김한별, 2015)와도 일치한다. 즉,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원만히 학교에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생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일상적 도전 속에서 긍정적 동기를 유지하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타인의 지지가 긍정심리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권수정, 2022; 이정화, 202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자아인식을 높이고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진로성숙도 또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성이 학생의 진로탐색 행동과 미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들(임지윤, 2018; 정은영, 2013)과도 일치한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며, 자기 및 직업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진로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이 되어,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신성철, 최성열, 2022; 김비 외, 2019)와도 부합한다.

더불어 진로성숙도는 학교적응에 정적 효과를 보여, 관련 선행 연구(김병하, 2017)를 지지하였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충실히 임하며, 학교교육이 자신의 삶과 진로에 유의미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와 현재의 학교생활을 연결짓는 인식 및 동기가 필요하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초기 측정모형은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주요 변수의 측정 변수들을 균형할당방법으로 문항 묶음한 결과,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설정된 모든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구조 모형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간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들 변인 간의 이론적 관계가 실제 초등학생들의 심리·행동적 특성과 부합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에서 다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학교적응을 단순한 외현적 행동이나 학업 성과의 문제가 아닌 정서적 자원과 진로발달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곽미아, 2021)와는 대조적인데, 기존의 연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의 차이로 발생한 결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발달 수준, 학습적 요구,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 있으며, 기초 학습 능력과 성역할 정체성 형성, 근면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다. 반면 중·고등학생은 ‘정체성 대 혼란’ 단계에 해당하며, 교육 및 진로 관련 목표 설정, 삶의 의미 탐색, 사회적 역할 수행 등 보다 복합적인 적응 과업에 직면한다(이영옥, 2010; Sharp, 2016/2019). 학업적 요구의 측면에서는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황혜정, 2006),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조은정, 2014). 이러한 차이는 정서적 자원인 긍정심리자본이 매개 변인으로 기능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등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지영, 2015; 조세영, 2022)와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연은모, 2018)를 지지한다. 또한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결여된 학생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 선행연구(금지현, 2012)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 가치관 등을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진로성숙도가 높

은 학생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진로성숙도를 활용한 상담적 개입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학생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 검사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진로성숙도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두 변인을 함께 다루는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적응을 증진시킨다는 연구(정영숙, 2013)가 보고된 바 있다. 진로와 관련된 미래 목표 설정은 교과 성취도와도 연결되며, 학생의 성장과 자아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동욱, 손원숙, 2014).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한 상담적 개입과 교육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내용이 초등 5~6학년군 교육과정 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수정, 2022)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혜경, 이희경, 2004; 유은경, 2018; 임지윤, 2018)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며,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소정, 2021)를 지지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로 인해 긍정심리자본이 높아지는 경우는 바로 학교적응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사회적 지지로 인해 높아진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금지현, 2012). 이러한 점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키는 개입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성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진로 인식과 계획 행동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학교생활에 대한 목표의식과 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낮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원할 때, 긍정심리자본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먼저 제공하고 이를 진로 발달과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Seligman(2002/2020)의 긍정 정서를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증진시키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는 감사와 용서, 망각을 통해 과거의 부정 정서를 긍정 정서로 재해석하고, 낙관성과 희망을 키워 미래의 긍정정서를 높이며,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고 마음챙김하는 경험을 통해 긍정 정서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교 현장 적용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이는 다요인적 접근을 바탕으로 개인의 내적 특성과 진로 관련 요인을 함께 고려한 구조모형을 제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상담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를 주요 중재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환경적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적 요인을 증진시키는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실천적 방안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을 토대로 진로성숙도를 순차적으로 강화시키는 전략이 학교적응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두 변인을 연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S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범위를 넓히고,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균등한 분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 표집 절차를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기반한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응답 왜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를 제언한다.

※ 논문 투고일: 2025. 09. 15.    ※ 논문 수정일: 2025. 11. 20.    ※ 게재 확정일 : 2025. 12. 10.

### 〈참고문헌〉

- 강진 (2020).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1217-1238.
- 곽미아 (2022). 청소년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수정 (202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1), 378-390.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권혜진, 성미영 (2014).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4), 395-403.
- 금지현 (2012).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애착, 진로성숙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3), 5-26.
- 김동욱,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의 미래지향적 목표와 진로성숙도 및 교과 성취도의 관계 :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7(3), 1-26.
- 김병하 (201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긍정적 사고 및 진로성숙도와 학교 생활적응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비, 김나미, 조현섭 (2019).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20(1), 55-68.
- 김성호 (2016). **고등학생의 자기복잡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 긍정적 자동적 사고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정 (2021).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 전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란 (2019).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 예측을 위한 동적학교생활화(KSD) 검사 타당화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응용 (2016). **상담학사전**. 서울: 학지사.
- 김태영 (20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초등학생의 희망, 정서지능, 학습동기, 진로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한별 (2015). 초등학교 방과 후 체육활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3(4), 443-452.
- 남궁정 (2004). 청소년을 위한 진로성숙도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7(2), 73-91.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AMOS**. 서울: 한빛아카데미.
- 박미진 (2019). 아동용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1123-1142.
- 박상민 (2008).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대인불안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윤희 (2022). COVID-19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코칭적 함의. **코칭능력개발지**, 22(3), 144-163.
- 박은선 (2000). **육아시설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영 (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배병렬 (2009).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백서호, 김장희 (2024). 초등학교 고학년의 초기부적응도식, 긍정심리자본, 자기표현력 및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재활심리연구**, 31(4), 159-178.
-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
- 신성철 (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아동교육학회**, 23(1), 199-214.
- 신성철, 최성열 (2022).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과 학교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학회지**, 3(4), 95-112.
- 유병선, 이채희, 이지연 (2008).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행정**, 6(3), 3-14.
- 유은경 (2018). 대학생의 Egogram 자아상태,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취업진로연구**, 8(4), 1-19.
- 여인주 (2014).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이 호텔조직구성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연은모 (2018). 부모의 교육참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진로성숙도, 인터넷 중독,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잠재평균분석과 다집단 경로계수차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433-456.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서희 (2019). **초등학생의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영남 (2019).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영옥 (2010). **발달단계 측면에서 본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환경과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변인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정운,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이주연 (202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지언, 정익중, 백종립 (2014).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5(2), 1-23.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청화 (2022).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지윤 (2018).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사회자본 및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영숙 (2013). **초등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인제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은영 (2013). **여고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익중, 임진영, 황매향 (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24(3), 169-194.
- 조세영 (2022).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정 (2014). **학령 후기 아동용 학교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정 (2014).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103-127.
- 차유립 (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희 (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아라 (2017). **청소년의 기질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진아, 이숙 (1996). 아동의 사회적 지지지각 및 만족도와 적응능력간의 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4(4), 1-12.
- 최혜경 (2022).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영진 (2017).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 학습·여가 균형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혜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 황매향, 선혜연, 김영빈 (2025). **직업·진로설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황혜정 (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193-216.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1), 42-61.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s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Luthans F., & Youssef, C. M.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 Rea, L. M., & Parker, R.A. (2005).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arracino, D., Presaghi, F., Degni, S., & Innamorati, M. (2011). Sex-specific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security, social values and sensation seeking in early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adolescent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34(3), 541-554.

- Schermelleh-Engel, K., Moosbrugger, H., & Müller, H.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8(2), 23-74.
- Seligman, M. E. P. (2020). **마틴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Authentic Happiness]. 김인자, 우문식 역. 서울: 물푸레. (원저출판년도 2002년)
- Sharf, R. S. (2019).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개념 및 사례 -제 6판-**. [Theories of psychotherapy & counseling: Concepts and cases(6th ed)]. 천성문, 김진숙, 김창대, 신성만, 유형근, 이동귀, 이동훈, 이명순, 한기백 역. 서울: Cengage Learning. (원저출판년도 2016년)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Abstract〉

---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Yang, Yunhee<sup>1</sup>, Seon, Hye-Yon<sup>2</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472 student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City S. After excluding non-responses, 423 questionnaires were finally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9.0 to conduct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 of each variable, and bootstrapping using phantom variables to verify the effect and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model mediated b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valid.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i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were found to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need for comprehensive intervention of soci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in the counseling context for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adjusting to school, as well a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points and directions in counseling.

**Keywords** :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maturity

---

1. Graduate Student,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bsgml2309@naver.com (Lead author)

2. Professor,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hy@knue.ac.kr (Corresponding author)